

News

'당국압박도 있었지만' 카뱅 증금리대출 확대, 금리보면 안다

뉴스1

카카오뱅크는 올해초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증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기존에는 시중은행들과 비슷했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0.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73%를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평균금리인 3.26%보다 0.47%p(포인트) 높은 수준

'40년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6억 집 살 때 3.6억 빌려준다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고정금리(연 2~3%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이번엔 처음 도입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

'금리상한형' 주담대 2년만에 다시 나온다

동아일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판매. 우선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고 연 상승 폭은 기존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인다. 2년 전 첫선을 보였을 땐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외면받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상품을 새롭게 정비해 내놓는 것

ESG서 'S(사회) 강화'...소상공인 집중지원 銀

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소상공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전략 중 S(사회) 부분을 강화 KB국민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 인천신보에 18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했고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으로 27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부대출 지원

삼성화재·KB손보, 테슬라와 제휴... 도대체 무슨 내용?

머니S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전기차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테슬라코리아와 광고제휴를 맺었다. 보험사는 테슬라코리아를 통해 전기차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테슬라코리아는 기존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

공모주 청약 문 좁히는 증권사...수수료 신설에 우대기준도 높아

아주경제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공모주 시장 초호황으로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공모주 청약 우대조건 기준을 변경한 증권사도 증가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KB증권은 공모주 청약 시 우대조건인 청약 한도를 일부 변경

쿠팡 화재에 보험사 수천억 보험금 지급 불뚱?...DB손보 "최대 70억"

뉴스1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쿠팡 측이 가입한 4,000억원 규모의 보험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수천억원대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 DB손해보험의 책임비중은 60%에 달하며 KB손해보험이 23%, 롯데손해보험 15%. 하지만 각사는 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화상통화 보험모집 기준 마련...사생활 침해 부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화상모집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